

<서평>

***The Greek New Testament,
Produced at Tyndale House***

**(Dirk Jongkind, Peter J. Williams, Peter M. Head,
and Patrick James, eds., Wheaton: Crossway Book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장동수*

1. 들어가면서

2017년 중반에 영국 케임브리지(Cambridge)시에 위치한 기독교 연구소인 틴델 하우스(Tyndale House)에서 더크 용킨트(Dirk Jongkind)와 피터 J. 윌리엄스(Peter J. Williams) 팀에 의하여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새로운 비평본이 출판되었다. 본인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첫인상은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바울서신이 아닌 공동서신(일반서신)이 배열된 점이다.¹⁾ 다음은 『틴델 하우스 그리스어 신약성서』라 불리는 *The Tyndale House Greek New Testament*(앞으로 THGNT로 표기함)에 대한 서평이다. 본 서평은 THGNT에 대한 소개와 평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2. THGNT에 대한 소개

2.1. 편집자(들)

THGNT를 생산해 낸 네 명의 편집자들은 영국 케임브리지의 대학촌에

*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대학원 신약학 교수. dschang@kbtus.ac.kr.

1) Dirk Jongkind, et al. eds., *The Greek New Testament, Produced at Tyndale House* (Wheaton: Crossway Book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v의 목차와 vii의 서문 참조 (각주에서도 이하에서는 THGNT로 표기함).

1944년 설립된, 독립적이며 복음적인 기독교 연구소인 틴델 하우스의 학자들이다. 편집장(editor)은 더크 용킨트, 부(副)편집장(associate editor)은 피터 J. 윌리엄스, 조(助)편집장들(assistant editors)은 피터 M. 헤드(Peter M. Head)와 패트릭 제임스(Patrick James)이다(iii). 네덜란드 출신 학자인 용킨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헤드의 지도하에 2005년 “시내 사본의 필사 습관들”(Scribal Habits of Codex Sinaiticus)이라는 제하의 신약성서 사본학 박사 논문을 작성하였다.²⁾ 편집장이 자신의 박사 논문에서 주장한 사본학적인 철학이, 그의 팀에 의하여 지난 10년 이상 이루어진 THGNT 프로젝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³⁾

2.2. THGNT의 구성

THGNT의 구성은 목차(Table of Contents, v)에 이어서 (1) 서문(Preface, vii-viii); (2) 신약성서의 그리스어 본문(Greek Text, 1-504); (3) 서론(Introduction, 505-524); (4)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525-526) 등과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다음은 각 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다.

2.2.1. 서문(Preface, vii-viii)

편집자들은 서문에서 THGNT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방법론에 대하여 약속한다. 그 목표는 사무엘 프리도 트레겔스(Samuel Prideaux Tregelles, 1813-1875)의 19세기 비평본에 기반을 두고 이를 철저하게 개정한 비평본을 생산하는 것이며,⁴⁾ 그 목적은 신약성서의 책들을 그것들을 가장 잘 증거해 주는 사본들의 가장 오래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다. 편집자들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독법들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사본의 필사 습관과 전형적인 전승 과정의 실수들을 조심스럽게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독성을 위하여, 초기 사본들과는 달리 띄어쓰기, 소문자체, 장과 절 표기 등은 사용했지만, 과도한 해석 작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단 나누기나 대문자로 시작하기를 제한하고 구두점도 쉼표, 세미콜론, 마침표,

2)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2년 후 동일한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Dirk Jongkind, *Scribal Habits of Codex Sinaiticus, Texts and Studies 5* (Piscataway, NJ: Gorgias Press, 2007).

3) THGNT, vii, 505-517.

4) S. P. Tregelles, *The Greek New Testament, edited from ancient authorities, with their various readings in full, and the Latin version of Jerome* (London: S. Bagster & Sons, 1857-1879).

물음표로만 제한하였음도 언급된다. 또한 편집자들은 다른 비평본에서 흔히 본문에 표기하는 이문 기호도 생략하고, 5세기 이전의 사본들에 사용된 철자법(고전 그리스어나 중세기 사본들, 그리고 현대 비평본들의 철자법과는 달라서)을 따랐음도 밝힌다.

신약의 책들이 전형적으로 사복음서, 사도행전과 공동서신, 히브리서가 포함된 바울서신, 요한계시록, 이렇게 네 그룹으로 묶인 사본들로 전승되었고, 신약의 모든 책들을 포함하는 초기(10세기 이전) 사본들에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이 배열된 경우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편집자들은 자신들의 비평본에서도 이를 반영하였노라고 밝힌다. 본문 페이지 하단에 작성된 비평장치(apparatus)는 본문으로 채택된 독법과 지지 사본들을 먼저 배열하고 이어서 다른 이문과 지지 사본들을 배열하는 순으로 작성하였음이 진술된다. 서문은, 예수야말로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편집자들의 신앙고백적인 말로 끝이 난다.

2.2.2. 신약성서의 그리스어 본문(Greek Text, 1-504)

우선, 본문에 대해 특기할 만한 사항들을 먼저 소개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이문의 선택에 대한 관찰 결과는 다음 단락에서 하도록 하겠다. THGNT의 편집자들은 고대 사본들(10세기 이전)의 체제와 필사 습관을 따른다는 전제 하에 모든 작업을 하였다.

그들은 각 책의 표제를 대문자로 책의 시작과 끝에 표기하였고 (ΕΥΑΓΓΕΛΙΟΝ ΚΑΤΑ ΜΑΘΘΑΙΟΝ, ΠΕΤΡΟΥ ΕΠΙΣΤΟΛΗ Α와 ΠΕΤΡΟΥ Α, ΠΡΟΣ ΡΟΜΑΙΟΥΣ 등),⁵⁾ 문단 나누기도 초기 사본들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였다. 그 일환으로 발생한 특이한 점은, 문단의 시작에서는 들여쓰기가 아니라 내어쓰기를 실행한 점이다. 즉, 편집자들이 서문에서 언급하고 뒤에 서론(512)에서 설명하였듯이, 본문의 문단을 표시하기 위하여 들여쓰기가 아니라 내어쓰기(ekthesis)를 하였다. 그리고 GNT⁵(Greek New Testament 5th)/NTG²⁸(Novum Testamentum Graece 28th)과는 달리 모든 책은 오른쪽 페이지에서 새로 시작한다. 또한 기존의 비평본들에서 흔하게 나오는 문단 제목(subheadings), 관주(cross-references), 비평 기호(apparatus sigla) 등이 보이지 않는다.

5) 공동서신에서는 ΕΠΙΣΤΟΛΗ(서신)라는 어휘가 책의 시작(ΠΕΤΡΟΥ ΕΠΙΣΤΟΛΗ Α)에서는 나타나고 책의 끝(ΠΕΤΡΟΥ Α)에서는 생략되었다. 그리고 연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 공동서신에서는 책의 시작에 ΕΠΙΣΤΟΛΗ(서신)라는 어휘가 사용되었으나 바울서신과 히브리서(ΠΡΟΣ ΕΒΡΑΙΟΥΣ)에서는 생략되었다.

그러나 글자체의 크기는, 초기 사본들의 대문자체가 아닌 현대 비평본처럼 소문자체가 사용되었지만, 구약 인용문은 특별하게(굵은 글자체나 문단 구별 등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문단의 시작에서나 고유 명사는 대문자로 시작된다. 하지만 이미 고유 명사로 여겨지는 Χριστός를 거의 모든 곳에서 소문자(χριστός)로 표기하는 특이점을 보인다.

편집자들은, 이어지는 서론에서 설명하듯이(508-512), 고대 철자법을 따라가는 시도를 하였다. 즉, “움직이는 ν”(movable ν)를 사용하는 것을 절제하고, 긴 ι를 표기하기 위하여 γίνομαι, γινώσκω, κλίνω, μισέω 등을 각각 γείνομαι, γεινώσκω, κλείνω, μεισέω 등으로 표기하는 작업을 신약의 여러 책들에서 전반적으로 시도하였다. 또한 ι 하기법(Iota subscript)도 소수의 후기 소문자 사본들에서만 도입된 것이라는 이유로, 여격을 표시할 때만을 제외하고 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히브리어 음역으로 표기되는 성명, 특히 Ἀβραάμ의 표기에 있어서 기존의 연 숨표가 아닌 거친 숨표(Ἀβραάμ)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특이점들이 있지만, THGNT의 가장 두드러진 특이 사항은 따로 있다. 그것은, 신약의 책의 순서에 있어서, 사도행전 다음에 바울서신이 아닌 공동서신을 배치한 점이다. 즉, 복음서, 사도행전, 공동서신, 바울서신과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의 순서로 되어있다. 그러나 각 그룹(복음서, 바울서신과 히브리서, 공동서신)의 세부적인 순서는 기존의 순서와 동일하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하여 편집자들은 서문에서 단지 한 문단으로 언급하는데(512), 역시 자신들이 사용한 초기 사본들이 그렇게 배치한 강한 경향성 때문이라고 밝힌다.⁶⁾

2.2.3. 서론(Introduction, 505-523)

본 비평본의 또 다른 특이점은 서론이 뒤에 나온다는 점인데, 편집자들은 서문에서 못다 한 이야기들을 이곳에서 상술한다. 기존의 비평본들에는 앞에 나오는, 서론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THGNT의 기초가 된 트레젤스의 비평본과 그 방법론에 대한 설명(505-507), 철자법(orthography, 508-512), 책들의 순서, 문단, 숨표, 강세, 구두점(order of books, paragraphs, breathing, accent, and punctuation, 512-515), 비평장치(the apparatus, 515-517), 그리고 증거 사본들의 목록(the witnesses, 518-523) 등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6) 편집자들은, 히브리서를 바울서신의 데살로니가후서와 디모테전서 사이에 두는 것이 상당한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 하였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바울서신인 빌레몬서 뒤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앞에 배치하였다: THGNT, 512.

서론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앞 단락들에서 본인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은 이리하다. 우선 편집자들은, 원래 트레겔스의 비평본에 대한 ‘가벼운 개정’(a light revision)을 예상하였지만, 자신들의 결과물은 그보다 ‘더 철저하고 완전히 새로운 개정판’(more thoroughgoing ... completely new edition)이 되어버렸다고 고백한다(506). 이는 트레겔스의 사본을 취급하는 방식(documentary approach), 즉 10세기 이전의 그리스어 대문자 사본(Greek majuscule) 두 개 이상 그리고 그 중의 하나는 반드시 5세기 이전의 그리스어 대문자 사본이 동시에 증거 하는 본문만이 신약 저자들의 본문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한다(506).

또한 편집자들은, “거룩한 이름”(nomina sacra)의 범위를 θεός, Ἰησοῦς, κύριος, χριστός로 제한하고, πατήρ, πνεῦμα, υἱός, Ἱερουσαλήμ 등은 초기 사본들의 증거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이름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편집자들은, 초기 사본들에서 사용된 “거룩한 이름”에 대한 편집자들의 연구 조사가 아직은 미흡하다면서, 앞으로 나오게 될 자신들의 본문비평 주석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더 나올 것을 암시하고 있다.

2.2.4.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525-526)

두 쪽으로 이루어진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단락에서는 본 비평본이 지난 십여 년 동안 여러 학자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를 포함한 후일담으로 구성되었다. 주로 편집장과 그와 협력하였던 각 분야의 조력자들의 활동에 대한 기술과 감사의 글이다.

3. THGNT에 대한 평가

다음은 THGNT의 특이 사항에 대한 평가, 본문 선택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다른 비평본들과의 비교, 특히 CBGM(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 일관성에 기초한 계보적 방법)이 적용된 GNT⁵의 공동서신의 본문 변화와의 비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간간이 방법론의 적합성, 결과물의 적합성, 이론적인 주장과 적용에 있어서의 일관성, 이문 선택의 적합성 등도 언급할 것이다.

3.1. 특이 사항에 대한 평가

1) THGNT의 편집자들은, 본문 편집에 있어서 초기 그리스어 파피루스나

대문자 사본(majuscules)에서 사용된 대문자체가 아닌 현대 비평본들처럼 소문자체를 사용하였으나, 중세기 이후(장은 13세기와 절은 16세기)의 장절 시스템을 따라간다. 증거 사본의 선택에 있어서 10세기 이전, 특히 5세기 이전의 그리스어 사본들만을 선택하였는데, 그 시기에 분명히 속하는 교부인용문, 번역본, 성구집 등을 제외시킨 이유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는 점이 궁금하다. 그리고 소문자 사본(minuscule) 69번과 1424번을 사용하면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본문 증거들”(diverse and significant textual witnesses)이라고 제시한 이유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2) 초기 사본들의 문단 나누기를 따라갔기 때문에, 문단의 첫 줄은 들여쓰기가 아니라 내어쓰기(ekthesis)를 하고 둘째 줄부터는 들여쓰기를 하여서, 문단의 시작에서 들여쓰기를 하는 현대의 문단 만들기와는 반대의 현상을 보여준다. THGNT에서 기존의 비평본(주로 GNT⁵와 비교)과는 특이하게 달라진 문단 나누기의 대표적인 예들은 다음과 같다.

마가복음 4:3의 문단의 시작을 첫 단어 'Ακούετε(“들어라”)부터가 아니라 두 번째 단어 'Ἰδοὺ(“보라”)로부터 시작하는 특이함을 보인다. THGNT의 편집자들이 고린도전서 14:34-35를 33절 뒤에 배치한 것은 NTG²⁸/GNT⁵와 같지만 문단 나누기는 상이하다. THGNT에서는 34절이 새로운 문단이 되지만, NTG²⁸/GNT⁵에서는 33절의 마지막 소절, Ὡς ἐν πάσαις ταῖς ἐκκλησίαις τῶν ἁγίων(“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이 새로운 문단의 시작이다. 이러한 특이점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요한복음 서문(요 1:1-18)의 마지막 절로 여겨지는 요한복음 1:18이 THGNT에서는 새로운 문단의 시작이다. 로마서의 주제 구절로 여겨져서 기존의 비평본에서는 독립된 문단으로 배치되는 로마서 1:16-17이 THGNT에서에서는 13절부터 시작되는 문단의 마지막 구절로 배치되었다. 또한 GNT⁵에서는 로마서 3:21이 새로운 문단의 시작인데 THGNT에서는 이 구절이 19절부터 시작되어 26절에서 끝나는 문단 가운데 평범하게 배치되어있다.

상반된 두 가지 예만 더 들어보겠다. 갈라디아서 5:1은, 이전 문단의 마지막 구절이 되어야 하는지(GNT⁵의 선택) 혹은 새로운 문단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지(비잔틴 계열 혹은 TR[Textus Receptus]의 선택)에 대하여 논란이 되는 구절인데, THGNT도 GNT⁵의 선택과 일치한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에서는 21절이 아니라 22절에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도록 배치한 THGNT는 21절에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도록 한 GNT⁵와는 다른 선택을 하였다. 이 뿐 아니라 ϩ⁴⁶과 사본 B를 따라 GNT⁵에서는 동사가 없는 22절에, THGNT

는 사본 κ , A 등을 따라 동사(ὑποτασσέσθωσαν)를 배치하기까지 하여 22절이 새로운 문단이 되도록 하였다.

THGNT의 문단 나누기의 예들이 기존의 비평본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충격을 주고 때로는 혼돈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단 나누기는 초기 필사자들의 본문 이해에 대한 빛을 던져 주는 면에서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만들어 줄 수 있다.⁷⁾

3) 고대 철자법을 따라한 반면, 일관성이 없다. 누가복음에서는 γίνομαι가 아니라 γείνομαι로 표기하였지만(예를 들면, 눅 12:54-55), 고대 사본들의 사도행전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는 고전 그리스어 형식인 γίγνομαι의 대체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움직이는 ν”(movable ν)를 적게 사용한 점과 더불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 Ἰησοῦ Χριστός로 이미 고유 명사화 된 어휘 Χριστός를 소문자(χριστός)로 표기한 점도 혼돈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또 다른 특이 사항으로 요한계시록의 몇 곳에서 숫자를 표기할 때, 수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알파벳 위에 실선을 긋는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즉 요한계시록 13:18의 “육백육십육”(ἑξακόσιοι ἑξήκοντα ἕξι)을 χξς로, 21:17의 “백사십사”(ἑκατὸν τεσσαράκοντα τεσσάρων)를 ρμδ로 표기하였다. 이 점도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선택인지가 불분명하다.

4) THGNT의 가장 두드러진 특이점은, 신약의 책의 순서에 있어서, 사도행전 다음에 바울서신이 아닌 공동서신을 배치한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배열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라흐만(Lachmann, 1842-1850), 티셴도르프(Tischendorf, 1862-1872), 트레겔스(1857-1879), 웨스트코트/호트(Westcott and Hort, 1881), 발리온(Baljon, 1898), 폰 게르하르트(von Gebhardt, 1901), 그리고 폰 조덴(von Soden, 1913) 등과 같은 우수한 학자들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초기 비평본들에서도 채택되었고,⁸⁾ 심지어 로빈슨/피어폰트(Robinson and Pierpont) 판(2005)도 이 순서를 따랐기 때문이다.⁹⁾ 이는 사도행전을 일곱 개의 공동서신을 위한 일종의 서사 구조(narrative framework)로 읽는 방식인 동시에 바울서신보다는 공동서신에 더 무게 중

7) Carl Gross, “Do We Need Another Greek New Testament? A Translator’s and Student’s Look at the Tyndale House Greek New Testament”, *The Bible Translator* 69:2 (2018), 321.

8) Bruce M. Metzger, *The Canon of the New Testament: Its Origin,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Oxford: Clarendon Press, 1992), 296. 각주 2번 참조.

9) Maurice A. Robinson and William G. Pierpont, eds.,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Byzantine Textform* (Southborough: Chilton Book Publishing, 2005).

심을 두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해 주는 또 다른 연구들도 있다.¹⁰⁾

5) 본문비평장치(apparatus)가 의도적으로 선택적이다. 이는 THGNT의 편집자들이 본문의 선택 방식에서 ‘온건한 선택주의’(reasoned eclecticism)를 따랐고, 세 종류의 이문들이 비평장치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열되었기 때문이다. 즉, (1) 최상으로 만족하는 원문으로 추정하여 본문으로 채택된 이문; (2) 석의적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문; (3) 필사 습관을 예시해주는 이문 등의 순서로 배열되었다. 그러나 본문에는 이문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가독성을 높여주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본문 선택에 있어서 편집자들의 확신도 표시(예를 들면, GNT⁵의 A-D의 등급)가 없기 때문에 독자들이 본문 선택의 확신도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게 하는 약점이 있다.

3.2. 본문 선택에 대한 평가: NTG²⁸/GNT⁵와의 선택적인 비교

THGNT의 편집자들이 서문과 서론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밝힌 본문 선택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사본의 외적 증거 즉, 사본의 고대성과 높은 질을 중요시하는, 역사-문헌적 방법(historical-documentary method)이다. 둘째는, 각 사본의 필사자의 필사 습관(scribal habits), 즉 내적 증거를 강조하는 엄격한 선택주의 방법(rigorous eclectic method)이다. 하지만 기존의 비평본들은 보통 이 두 방법을 조화시킨 온건한 선택주의 방법(reasoned eclectic method)을 적용해 왔다.¹¹⁾ THGNT의 편집자들도 자신들이 주장한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병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론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그들이 선택한 본문의 예들이다.

1) 마가복음의 말미: THGNT의 편집자들은 긴 말미(16:9-20)를 괄호 없이 본문에 실고 있는데, 생똥맞게 8절 끝에 소문자 사본 1에서 발견되는 코멘트를 대문자체의 독립된 문단으로 배치하였다. 즉, “몇몇 사본들에는 전도자가 여기서 글을 마치고 있다. 유세비우스 팜필루스(Eusebius Pamphilus)도 여기까지를 캐논(Canon) 단위로 삼고 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본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EN TISI MEN TON ANTIPRAPHON, EQS

10) David Trobisch, *The First Edition of the New Testa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26-27, 48; Greg Goswell, “The Order of the Books of the New Testament”,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3:2 (2010), 225-241.

11) 장동수, 『신약성서 사본과 정경』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10), 124-125 참조.

원문인가¹³⁾ 사이에서 첨예한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¹⁴⁾ 그래서 다수의 현대 비평본들은 겹 대괄호 속에 두고 있는 구절이다. 이러한 현상은 누가복음 23:34상(ὁ δὲ Ἰησοῦς ἔλεγεν, Πάτερ, ἄφες αὐτοῖς, οὐ γὰρ οἴδασιν τί ποιοῦσιν.)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구절도 찬반이 치열한 이문 단위에 속한다.¹⁵⁾ 누가복음 22:31에서도 THGNT는, NTG²⁸/GNT⁵에는 없는,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길,”(Ἐἶπεν δὲ ὁ κύριος,)이라는 어구로 시작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비잔틴 계열(다수 사본) 혹은 TR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6) 로마서 5:1에서, THGNT의 편집자들은 외적 증거가 더 강한 가정법 동사 ἔχωμεν을 본문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외적 증거는 약하지만 내적 증거를 내세우며(그것도 A 등급으로) 직설법 동사 ἔχομεν을 채택하였던 NTG²⁸/GNT⁵와는¹⁶⁾ 차별되는 본문임에는 틀림이 없다.¹⁷⁾

7) 히브리서 2:9의 χάριτι θεοῦ(“하나님의 은혜로”)와 대립하는 이문, χωρὶς θεοῦ(“하나님과 상관없이”)에 대한 고대 번역본과 교부인용문의 강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문이 NTG²⁸/GNT⁵와는 달리 THGNT에서는 비평장치에서 거절되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요한1서 5:7-8의 경우(Comma Johanneum)와는 사뭇 비교된다. 그 이유는 편집자들이 초기 그리스어 사본들에만 의존하고, 교부인용문과 번역본, 그리고 성구집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8) 데살로니가전서 2:7에서 THGNT의 편집자들은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던 원칙에 반하는 이문(ἥπιοι)을 본문으로 채택하고 있다. 즉 초기 증거 사본들의 지지가 강한 νήπιοι(“어린아이”)를 배척하고, 초기 증거 사본들의 지지가 약함에도 ἥπιοι(“온유한 자”)를 채택하였다. 물론 THGNT의

13) 클리바즈(Claire Clivaz)는 원문으로 본다: Claire Clivaz, “The Angel and the Sweat Like Drops of Blood (Lk 22:43-44): P69 and f13”, *Harvard Theological Review* 98:4 (2006), 419-440.

14) 블루멜(L. H. Blumell)은 원문으로, 메츠거는 본문의 고대성은 인정하나 첨가로 본다: Lincoln H. Blumell, “Luke 22:43-44: An Anti-Docetic Interpolation or an Apologetic Omission?”, *Textual Criticism* 19 (2014), 1-35; 브루스 M.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제 2판, 장동수 역(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16), 146.

15) 유뱅크(N. Eubank)는 원문으로, 윌트락(J. A. Whitlark)과 패슨스(M. C. Parsons) 그리고 메츠거는 역시 본문의 고대성은 인정하나 첨가로 본다: Nathan Eubank, “A Disconcerting Prayer: On the Originality of Luke 23:34a”,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9 (2010), 521-536; Jason A. Whitlark and Mikeal C. Parsons, “The Seven Last Words: A Numerical Motivation for the Insertion of Luke 23:34a”, *New Testament Studies* 52 (2006), 188-204; 브루스 M.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149.

16) 브루스 M.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438-439.

17) 가정법을 지지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장동수, 『신약성서 사본과 정경』, 145-147을 참조.

편집자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함을 ◆표로 표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NTG²⁸/GNT⁵의 본문 선택(νήπιολ)과도 다른 결정이다.¹⁸⁾ 다만 추측할 수 있는 점은 THGNT의 편집자들이 두 번째로 강조했던 본문 선택의 원칙인 “필사 습관”을 더 중하게 본 결정으로 보인다.

9) 흥미롭게도, THGNT의 편집자들은 갈라디아서 5:21의 시작에서 기존의 φθόνοι(‘시기’, NTG²⁸/GNT⁵)가 아니라 φθόνοι, φόννοι(‘시기, 살인’)를 본문으로 두고 있다. 이 경우는 편집자들이 일반적인 원칙, 즉, ‘더 짧은 이문이 원문일 가능성이 높다’(brevior lectio probabilior)라는 원칙을 적용하기 보다는 필사 습관의 관점에서 선택한 이문이다. 필사 습관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경우 철자가 너무 비슷하여(φθόνοι와 φόννοι) 필사자들이 첨가하기보다는 생략하기 쉽기 때문에, 편집자들이 첨가된 이문을 더 어려운 이문(그래서 ‘더 어려운 이문이 원문일 가능성이 높다’[difficilior lectio potior]라는 원칙을¹⁹⁾ 적용)으로 본 결과로 보인다.

3.3.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그리스어 신약전서』 5판의 공동서신과의 비교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그리스어 신약전서』 5판(GNT⁵)의 공동서신은 소위 “일관성에 기초한 계보적 방법”(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 CBGM)이 적용되어 산출된 본문이다.²⁰⁾ CBGM 방법론의 적용을 통하여 산출된 공동서신의 본문을 NTG²⁸과 GNT⁵가 공유하는데, 이전의 판(NTG²⁷/GNT⁴)과 달라진 이문 단위가 서른 세 곳이었다. NTG²⁸에서는 서른 세(33) 곳 모두가 비평장치에 정보가 수록되어있으나, GNT⁵에는 이 중에서 열세(13) 곳에서만 비평장치에 정보가 제공되었다.²¹⁾ 본고에서는 이 서른 세 곳 모두에서 THGNT의 본문과 NTG²⁸/GNT⁵의 본문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아래의 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²²⁾

18) 브루스 M.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543-544.

19) 이는, THGNT의 편집자들이 일면 강조한, 증거 사본들의 연대와 질의 우세에 손을 들어주며 첨가로 보는 메츠거의 견해와 상반된다. 브루스 M.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513.

20) GNT⁵의 공동서신의 본문 변화와 CBGM 방법론에 관한 설명은, 장동수,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그리스어 신약전서』 5판의 본문 변화들에 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9 (2016), 266-287을 참조.

21) 약 2:3; 벰전 4:16; 5:10; 벰후 2:6, 11, 18, 20; 3:6, 10, 18; 요1 5:10, 18; 유 5.

22) 장동수,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그리스어 신약전서』 5판의 본문 변화들에 대한 연구”, 270-271의 표를 활용하였음.

<표 1> GNT 5판/4판과 THGNT 판과의 비교

		ECM/NTG ²⁸ /GNT ⁵	NTG ²⁷ /GNT ⁴	THGNT
약	1:20	οὐ κατεργάζεται	οὐκ εργάζεται	οὐκ εργάζεται
	2:3	ἢ κάθου ἐκεῖ	ἐκεῖ ἢ κάθου	ἐκεῖ ἢ κάθου
	2:4	καὶ οὐ διεκρίθητε	οὐ διεκρίθητε	οὐ διεκρίθητε
	2:15	λειπόμενοι ὧσιν	λειπόμενοι	λειπόμενοι
	4:10	τοῦ κυρίου	κυρίου	κυρίου
벤전	1:6	λυπηθέντας	λυπηθέντες	λυπηθέντες
	1:16	생략	[ὅτι]	생략
	1:16	생략	[εἰμι]	생략
	2:5	생략	[τῶ]	생략
	4:16	μέρει	ὀνόματι	ὀνόματι
	5:1	τοὺς	οὖν	οὖν τοὺς
	5:9	생략	[τῶ]	생략
	5:10	생략	[Ἰησοῦ]	생략
벤후	2:6	ἀσεβεῖν	ἀσεβέ[σ]ιν	ἀσεβεῖν
	2:11	παρὰ κυρίῳ	παρὰ κυρίου	παρὰ κυρίῳ
	2:15	καταλιπόντες	καταλείποντες	καταλείποντες
	2:18	ὄντως	ὀλίγως	ὄντως
	2:20	생략	[ἡμῶν]	생략
	3:6	δι' ὄν	δι' ὦν	δι' ὦν
	3:10	οὐχ εὐρεθήσεται	εὐρεθήσεται	εὐρεθήσεται
	3:16	ταῖς ἐπιστολαῖς	ἐπιστολαῖς	ἐπιστολαῖς
	3:16	στρεβλώσουσιν	στρεβλοῦσιν	στρεβλοῦσιν
	3:18	생략	[ἀμήν]	ἀμήν
요1	1:7	생략	δὲ	δὲ
	3:7	παιδία	τεκνία	τεκνία
	5:10	ἐν αὐτῷ	ἐν ἑαυτῷ	ἐν ἑαυτῷ
	5:18	ἑαυτόν	αὐτόν	ἑαυτόν
요2	5	γράφων σοι καινήν	καινήν γράφων σοι	καινήν γράφων σοι
	12	ἡ πεπληρωμένη	πεπληρωμένη ἡ	ἡ πεπληρωμένη
요3	4	ἀληθεία	τῇ ἀληθεία	τῇ ἀληθεία
유펜	5	ἅπαξ πάντα ὅτι Ἰησοῦς	πάντα ὅτι [ὁ] κύριος ἅπαξ	ἅπαξ πάντα ὅτι Ἰησοῦς
	18	생략	[ὅτι]	ὅτι
	18	생략	[τοῦ]	생략

위의 표에 나타난 비교의 결과물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첫째로, 서른세 곳의 이문 단위 중에서 열여덟 곳이 NTG²⁸/GNT⁵의 본문과 일치하지 않고 이전 판(NTG²⁷/GNT⁴)과 일치한다. 이는 CBGM이 적용되어 생산된 NTG²⁸/GNT⁵의 공동서신의 본문 변화의 과반 이상이 (18/33=54%) 초기 사본들에서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THGNT의 편집자들은 베드로후서 3:10에서는 트레겔스의 방법론을 따라 “드러나리라”(εὐρεθήσεται)를 본문으로 택하였으나 NTG²⁸/GNT⁵의 독법을 따라 추측적인 부정어(οὐχ)를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이는 NTG²⁸/GNT⁵의 독법은 그리스어 사본들이 아닌 극소수의 번역본들만이 지지하는 독법이라서 그 증거 사본의 지지 기반이 약한 이문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THGNT에서 세 곳은 오히려 비잔틴 계열과 일치하는 독특한 독법을 지니고 있다. THGNT에서 베드로후서 3:18의 ἄμην과 유다서 18절의 ὅτι는 TR과 일치한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1의 경우, NTG²⁸에서는 두 개(οὖν과 τοὺς)의 이문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THGNT에서는 하나(οὖν τοὺς)로 보았는데, 이와 일치하는 비평본이 없다.

셋째로, 서른세 곳의 이문 단위 중에서 열두 곳이(12/33=36%) THGNT의 본문과 NTG²⁸/GNT⁵의 본문이 일치한다. 이 중에서 베드로후서 2:18(ἴνα)와 요한1서 5:18(ἐαυτόν), 그리고 유다서 5절은 해석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변화들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THGNT가 유다서 5절에서 기존의 “주”(ὁ κύριος)보다는 “예수”(Ἰησοῦς)로 본문을 택함으로써 NTG²⁸/GNT⁵의 독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다.²³⁾

NTG²⁸/GNT⁵의 본문의 모체가 되었던 대비평본(*Editio Critica Maior*, ECM) 프로젝트가 향후 20년 안에 공동서신을 넘어서 신약성서 전체의 본문을 CBGM 방법론의 적용을 통하여 생산해 내려는 야심찬 계획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 위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낸 THGNT의 본문과의 비교 작업은 의미도 있고 흥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THGNT의 편집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본문 주석의 내용과 더불어 그들이 이미 적용한 방법론과 CBGM 방법론의 적실성을 각각의 결과물을 통하여 검증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 장동수,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그리스어 신약전서』 5판의 본문 변화들에 대한 연구”, 279-280.

4. 나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논의한 여러 약점들이나 혹평(酷評)에도 불구하고,²⁴⁾ THGNT는 기존의 우수한 비평본들이나 2010년에 출판된 SBL판²⁵⁾등과 비교하면서 연구해 볼 대안적 비평판으로서의 기능은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용된 방법론과 제시된 본문 자체가 중요한 강점이며 공헌이라고 호평(好評)하는 논평자도 있고,²⁶⁾ 또한 그것이 상당한 정도로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선 가독성이 뛰어나서 다른 방해 없이 그리스어 신약 본문을 읽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위시하여 고대 사본들에 나타난 신약의 책들의 순서, 철자법, 구두점, 문단 나누기(ekthesis와 함께)를 참고하면서 내적으로 흐르는 그 당시의 해석 방식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Keywords)

틴델 하우스 그리스어 신약성서(THGNT), NTG²⁸/GNT⁵, 문헌적 방법, 필사 습관, 온건한 선택주의, 일관성에 기초한 계보적 방법(CBGM), 신약의 책들의 순서.

The Tyndale House Greek New Testament(THGNT), NTG²⁸/GNT⁵, Documentary Approach, Scribal Habits, Reasoned Eclecticism, 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CBGM), Arrangement/Order of the New Testament Books.

(투고 일자: 2019년 1월 10일, 심사 일자: 2019년 2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19년 4월 17일)

24) Gross, “Do We Need Another Greek New Testament?”, 315-325; Jeffrey T. Riddle, “Book Review: Dirk Jongkind, ed., *Tyndale House Greek New Testament*”, *Puritan Reformed Journal* 10:2 (2018), 329-333.

25) Michael W. Holmes, ed., *The Greek New Testament: SBL Edi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0).

26) Zachary J. Cole, “A New Greek New Testament: Dirk Jongkind (ed.), *The Greek New Testament, Produced at Tyndale House*, Cambridge (Wheaton, IL: Crossway, 2017)”, *The Expository Times* 129:11 (2018), 538.

<참고문헌>(References)

- 매츠거, 브루스 M.,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제2판,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16.
- 장동수,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그리스어 신약전서』 5판의 본문 변화들에 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9 (2016), 266-287.
- 장동수, 『신약성서 사본과 정경』,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10.
- Blumell, Lincoln H., “Luke 22:43-44: An Anti-Docetic Interpolation or an Apologetic Omission?”, *Textual Criticism* 19 (2014), 1-35.
- Clivaz, Claire, “The Angel and the Sweat Like ‘Drops of Blood’ (Lk 22:43-44): P^{69} and f^{13} ”, *Harvard Theological Review* 98:4 (2006), 419-440.
- Cole, Zachary J., “A New Greek New Testament: Dirk Jongkind (ed.), *The Greek New Testament, Produced at Tyndale House*, Cambridge (Wheaton, IL: Crossway, 2017)”, *The Expository Times* 129:11 (2018), 538.
- Ehrman, Bart D., and Plunkett, Mark E., “The Angel and the Agony: The Textual Problem of Luke 22:43-44”,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5 (1983), 401-416.
- Eubank, Nathan, “A Disconcerting Prayer: On the Originality of Luke 23:34a”,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9 (2010), 521-536.
- Goswell, Greg, “The Order of the Books of the New Testament”,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3:2 (2010), 225-241.
- Gross, Carl, “Do We Need Another Greek New Testament? A Translator’s and Student’s Look at the Tyndale House Greek New Testament.”, *The Bible Translator* 69:2 (2018), 315-325.
- Holmes, Michael W., ed., *The Greek New Testament: SBL Edi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0.
- Jongkind, Dirk, *Scribal Habits of Codex Sinaiticus*, Texts and Studies 5, Piscataway, NJ: Gorgias Press, 2007.
- Jongkind, Dirk, et al., eds., *The Greek New Testament, Produced at Tyndale House*, Wheaton: Crossway Book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 Metzger, Bruce M., *The Canon of the New Testament: Its Origin,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Oxford: Clarendon Press, 1992.
- Riddle, Jeffrey T., “Book Review: Dirk Jongkind, ed., Tyndale House Greek New Testament”, *Puritan Reformed Journal* 10:2 (2018), 329-333.
- Robinson, Maurice A. and Pierpont, William G., eds.,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Byzantine Textform*, Southborough: Chilton Book

Publishing, 2005.

Trobisch, David., *The First Edition of the New Testa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Whitlark, Jason A., and Parsons, Mikeal C., “The ‘Seven’ Last Words: A Numerical Motivation for the Insertion of Luke 23:34a”, *New Testament Studies* 52 (2006), 188-204.

<Abstract>

**Book Review - *The Greek New Testament,
Produced at Tyndale House*
(Dirk Jongkind, Peter J. Williams, Peter M. Head,
and Patrick James, eds., Wheaton: Crossway Book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Dong-Soo Chang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This is a critical review of *The Greek New Testament, Produced at Tyndale House*, Dirk Jongkind, Peter J. Williams, Peter M. Head, and Patrick James, eds. (Wheaton: Crossway Book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As the title of the edition indicates, The Tyndale House Greek New Testament (THGNT) is a kind of critical edition of the Greek New Testament produced by several scholars at Tyndale House, an independent and evangelical Christian study center in Cambridge, England. This paper consists of mainly two parts: introducing THGNT and evaluating both its text and methods applied upon building its text.

THGNT is organized into four main parts: (1) Preface (vii-viii); (2) Greek text of the New Testament (1-504); (3) Introduction (505-524); and (4) Acknowledgements (525-526). The preface explains that THGNT is “based on a thorough revision of the great nineteenth-century edition of Samuel Prideaux Tregelles” and “aims to present the New Testament Books in the earliest form in which they can be attested” (vii). THGNT text is presented surprisingly in the order of the four Gospels, Acts, the catholic epistles (James-Jude), the Pauline epistles including Hebrews, and Revelation. The editors use the ekthesis paragraph divisions (first line set to left margin with the rest of the paragraph inset). The introduction explains the distinctive approach to this edition including orthography, order of books, paragraphs, breathings, accents, punctuation, the apparatus, and the list of witnesses.

Through investigation of both the text selections including the apparatus and the applied methods of THGNT, and comparing them with those of NTG²⁸/GNT⁵ and other some editions, this review evaluates that the two

strengths of THGNT are its method (reasoned eclecticism balanced with documentary approach and emphasis of scribal habits) and the text itself with good readability. Some interesting choices of THGNT are as follows: THGNT relegates John 7:53-8:11 to the apparatus, and presents Mark 16:9-20 in the text prefaced by the famous scribal note found in minuscule 1. THGNT abbreviates and marks off with a supralinear stroke some numerals in Revelation 13:18 (χξς, 666) and 21:17 (ρμδ, 144). THGNT chooses ὁ μονογενης υἱός rather than μονογενης θεός (NTG²⁸/GNT⁵) in John 1:18, and includes the prayer of Jesus of Luke 23:34 without brackets but lists the omission as a variant and marks with a black diamond. For the study of the Greek New Testament, this paper therefore strongly recommends THGNT as a good alternative edition to be compared with NTG²⁸/GNT⁵ as well as the *SBL Edition of The Greek New Testament* (2010).